

거리로 나선 민주, 서울광장서 첫 '천막 의총'

소속의원 90여명 참석...與 국정원 국조 방해 규탄

대검 항의 방문...민생입법 발의·투쟁 활동 병행

거리로 나선 민주당이 1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꾸렸다.

민주당은 이 천막 안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국조 방해 공작을 규탄했다.

이날 열린 첫 '천막 의총'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소속 의원들과의 토론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국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조 포기를 말한 바가 없다. 앞으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의 열기와 요구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만의 정치, 자기들끼리만의 야합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침을 수가 없어서 한발을 광

장에 달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총 후 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법사위 소속 박법계·서영교·이춘석·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특검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관련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천막에서 최고 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열고 국민과 접촉하면서 대외 투쟁 동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운동본부 산하에는 진상조사본부·서명운동본부·정책본부·운영본부·상황본부·해외동포연대 등이 설치됐다. 본부 상황실은 오전 9시~오후 9시 운영하고 상황실 근무는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조를 편성해 번갈아 담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막상 2008년 촛불집회의 본격적인 서울광장으로 나섰지만 투쟁수위, 지금까지 촛불집회를 벌여온 외부 세력과의 연대 문제를 고심 중이다. "대선 불복이 아니다"는 당 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직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이 본격화되면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일단 차별화된 촛불집회를 하기로 했다. 오는 3일 오후 6시에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보다 1시간 앞서 개최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대외 협상을 이어가고 민생현장 방문, 민생입법 발의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4정책조정위 주최로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서민 주거부담 완화 및 부동산 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

최회로 하는 등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대처 국면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은 돌파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김 대표는 "국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름 남은 국정원 국조 특위 증인채택 싸움만하다 끝나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제대로 활동 한 번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장외투쟁의 길로 나섰고 새누리당도 민주당을 말릴 생각이 없고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반응이다. 때문에 당장 국정원 기관보고(5일)와 청문회(7~8일), 결과보고서 채택(12일)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조는 사실상 끝났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1일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운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는 이른바 '동행명령 강제화'를 놓고서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4대 종단 종교인들이 1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4대 종단 "국정원 해체" 촉구

원불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광주지역 4대 종단 종교인들은 1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광주지역 4대 종단 종교인' 일동은 이날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국가 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해버렸을 경우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들은 이어 "훼손된 민주주의의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 한다면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침묵 모드 문재인 '천막 의총'도 불참

노무현재단은 대화록 해설서 발간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을 시작했지만 이번 정국의 한 중심에 있는 문재인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이어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장외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 의원이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개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는 당이 최근 부산은 물론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국정원 규탄 장외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문 의원은 지난 26일 대화록 실종과 관련, "혹여 제가 불렀던 귀책 사유

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후 정국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정국을 만들며 순환할 무렵,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야기하자 문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며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하지만,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지면서 본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궁지에 몰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의원 측은 이날 의총 불참에 대해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장외투쟁 동참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의원과 가까

운 한 의원은 "문 의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면 여론의 '문재인 책임론'만 부각될 수 있다"며 "당분간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목소리는 다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유력한 정치인 중 한 분(문재인 의원)께서 원본 공개를 주장했고 NLL 논쟁을 끝내자고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과 민주당 내 많은 분들에게 큰 혼란을 줬다"면서 "문 의원이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서인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민주투쟁 파장 주시

野 요구 '남재준 해임·대통령 사과' 여론 촉각

장외투쟁 지속면 하반기 국정운영 차질 우려

청와대는 1일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내세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 등은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겉으로 어떤 입장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 동향에 따라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계속 태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장외투쟁에 여론이 호응한다면 '남 국정원장 해임과 박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청와대에 적잖은 압박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더운 날씨와 휴가철 등을 이유로 여론의 호응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에 대해적이다.

그럼에도, 여론 격화에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지속될 경우,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살리기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오랫동안 극심한 대결로 치달을 경우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3층, 4층 시네마 분양완료 CGV 영화관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 3층~4층	영화관 분양 및 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